SU-D51

신이식 수여자에서 관찰되는 대장내시경 소견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신장내과

전연주 · 이소영 · 형복진 · 황현석 · 윤혜은 · 최범순
김용수 · 김석영 · 장윤식 · 최의진 · 방병기 · 양철우

Colonoscopic Findings in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Youn Joo Jeon, So Young Lee, Bok Jin Hyoung, Hyeon Seok Hwang, Hye Eun Yoon
Bum Soon Choi, Yong Soo Kim, Suk Young Kim, Yoon-Sik Chang, Euy Jin Choi
Byung Kee Bang and Chul Woo Yang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목 적 : 신이식 후에 위장관 악성종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왔으나 현재의 대장내시경 검사지침은 신이식 수여자와 일반 인구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용종의 빈도 및 조직 소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왔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신이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신이식 수여자의 대장내시경 소견을 조사하였다.

방 법 : 신이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3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장내시경 혹은 결장경을 시행받은 신이식 수여자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들 중에서 신이식 이전에 대장직장암이나 용종을 진단 받은 사람은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별한 2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 과 : 신이식 후 대장내시경 및 결장경을 시행 받을 때까지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44개월 (0- 362개월) 이었다. 대상 환자의 평균 나이는 51.2세 (21- 77세)였다. 대장내시경이나 결장경을 통해 82예에서 (34.2%) 대장직장의 용종이 관찰되었다. 이 중 49명은 단독 용종이었으나 33명에서는 2개 이상의 용종이 동반되었다. 용종의 개수는 평균 2.1개 였다 (1- 13개). 각각의 용종에서 이루어진 조직검사에서 52예가 관상선암이었고, 22예가 염증성 용종, 7예가 과증식 용종, 4예가 융모선종, 3예의 림프양용종, 그리고 4예의 (1.7%) 선암이 확인되었다. 17예에서는 2가지 이상의 조직형이 동반되어 있었다. 보통의 환자에서 대장경을 권하지 않는 나이인 50세 이하에서 대장직장 용종이 발견된 신이식 수여자는 43명 (52.4%)이었다. 대장직장 암종이 발생한 환자의 평균 진단 나이는 63.5세 (52- 79세)였다.

결 론 : 신이식 수여자의 대장내시경 소견에서 암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직형의 용종이 빈번하게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용종은 일반적인 대장내시경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50세 이하의 신이식 수여자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다. 신 이식 후 정규적인 대장내시경이 용종과 암종의 조기 진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신이식, 대장내시경, 용종
Kidney transplant, Colonoscopy, Polyp